

(6) 애니메이션

영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은 유럽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파산하거나 글로벌 애니메이션 배급·유통사에게 흡수되었다. 다사다난한 해를 맞이하며 2013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영국의 애니메이션시장은 전년대비 1.9% 성장한 2억 1,4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영국의 애니메이션산업이 어려움을 겪기는 하였으나 토마스와 친구들(Thomas and Friends)의 후속작이 출시되었고 5편의 애니메이션을 생산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과거 인기가 많았던 만화들이 리메이크되면서 새로운

8) BFI StatisticalYearBook, 2014

부흥기를 맞이한 영국의 애니메이션산업은 향후 5년간 3.8%의 성장세를 보이며 2018년까지 2억 5,800만 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표 2-12] 영국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09-2018

[단위 :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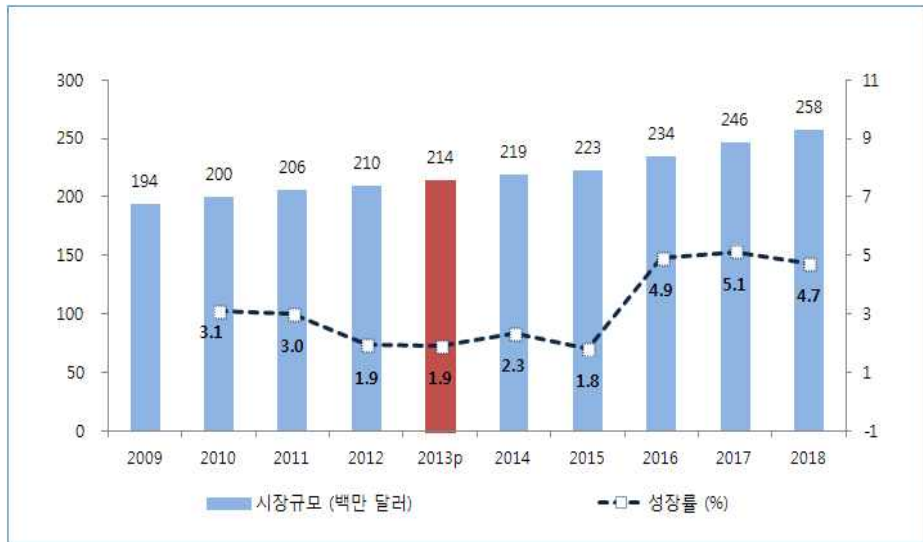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3-18 CAGR
영화	53	54	58	64	66	68	70	73	76	77	3.2
극장광고	9	9	9	9	10	10	10	10	11	11	2.3
디지털배급	2	4	8	12	17	23	29	38	49	62	29.6
방송	9	9	11	11	12	13	13	14	15	15	5.0
홈비디오	121	123	121	113	109	105	101	98	96	92	△3.4
합계	194	200	206	210	214	219	223	234	246	258	3.8

출처 : PwC(2014), Digital Vector(2013)

제1절

- 1. 영국
- 2. 프랑스
- 3. 독일
- 4. 스페인
- 5. 러시아
- 6. 이탈리아
- 7. 스웨덴
- 8. 터키
- 9. 중동 아프리카

[그림 2-34] 영국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09 - 2018



출처 : PwC(2014), Digital Vector(2013)

2009년 27.2%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던 박스오피스 애니메이션시장은 2013년 30.8%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홈비디오시장은 2013년 51.5%의 비중을 보였는데 2018년까지 35.7%의 비중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디지털 산업이 발달하고 소비자들이 편리한 방식의 콘텐츠를 선호하게 되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접속이 가능한 디지털 만화의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어 인터넷을

이용한 디지털배급시장은 2013년 8.0%에서 2018년까지 24.2%의 점유율로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35] 영국 애니메이션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09 vs. 2013 vs. 2018



출처 : PwC(2014), Digital Vector(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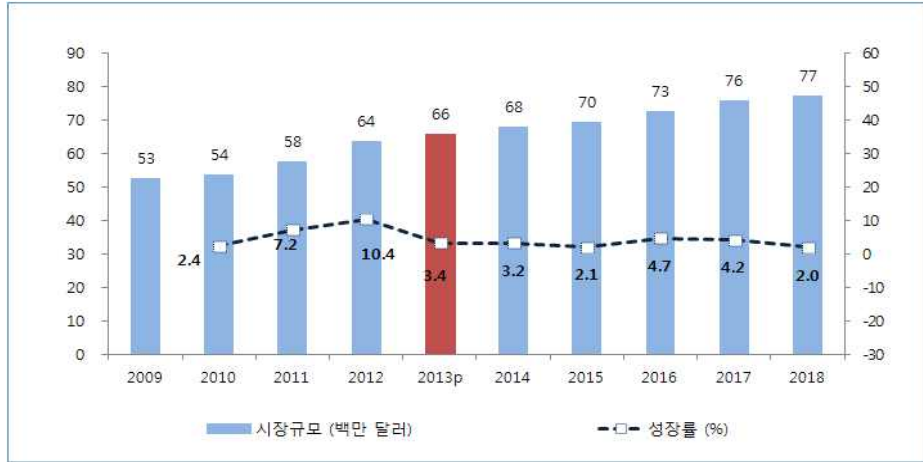
가. 영화 애니메이션

2013년 영국에서는 영화 애니메이션이 인기가 많은 장르로 떠오르면서 전년대비 3.4% 성장한 6,600만 달러의 시장으로 집계되었다. 비록 많은 영화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문을 닫거나 매각되었지만 다수의 업체들이 해외 제작사와 공동 제작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활로를 찾았다. 2011년 이후 특별한 영화 애니메이션의 제작은 없었지만 최근 영국과 미국, 호주가 공동 제작하는 퓨전 풀 3D 극장용 애니메이션 ‘다이너소어 어드벤처 3D(Walking with Dinosaurs 3D)’가 연말에 개봉될 예정이고 ‘행복 배달부(Postman Pat: The Movie)’가 미국과 공동 제작중이어서 영국의 애니메이션산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영화 애니메이션시장은 2018년까지 연평균 3.2%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7,700만 달러의 규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제1절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스페인
5. 러시아
6. 이탈리아
7. 스웨덴
8. 터키
9. 중동 아프리카

[그림 2-36] 영국 영화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09 -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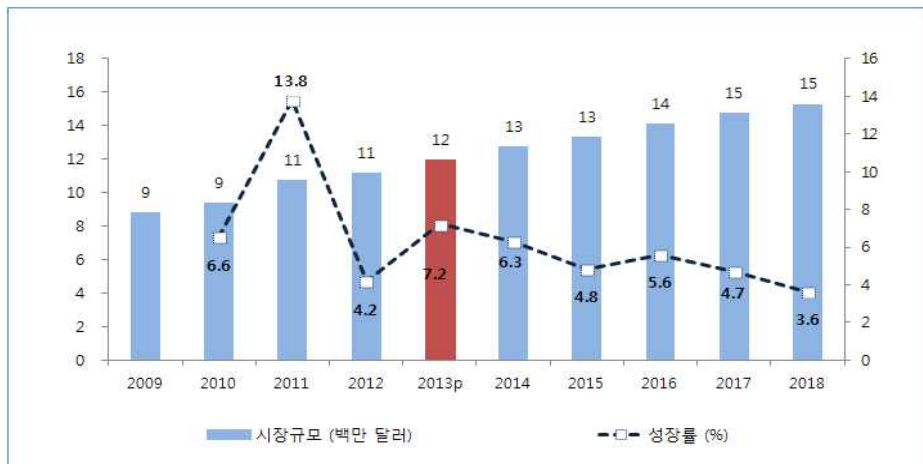


출처 : PwC(2014), Digital Vector(2013)

나. 방송 애니메이션

2013년 영국의 방송 애니메이션은 전년대비 7.2% 성장한 1,200만 달러의 시장으로 집계되었다. 방송 애니메이션 역시 해외 제작사와 공동 제작을 활로를 찾았는데 애니메이션 제작사 HIT는 ‘토마스과 친구들(Thomas & Friends)’, ‘용사 마이크(Mike the Knight)’등을 캐나다에서 외주제작하였고 ‘초리온(Chorion)’은 ‘Mr Men’을 미국에서 외주제작하여 시장을 개척하였다.

[그림 2-37] 영국 방송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09 - 2018



출처 : PwC(2014), Digital Vector(2013)

제1절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스페인

5. 러시아

6. 이탈리아

7. 스웨덴

8. 터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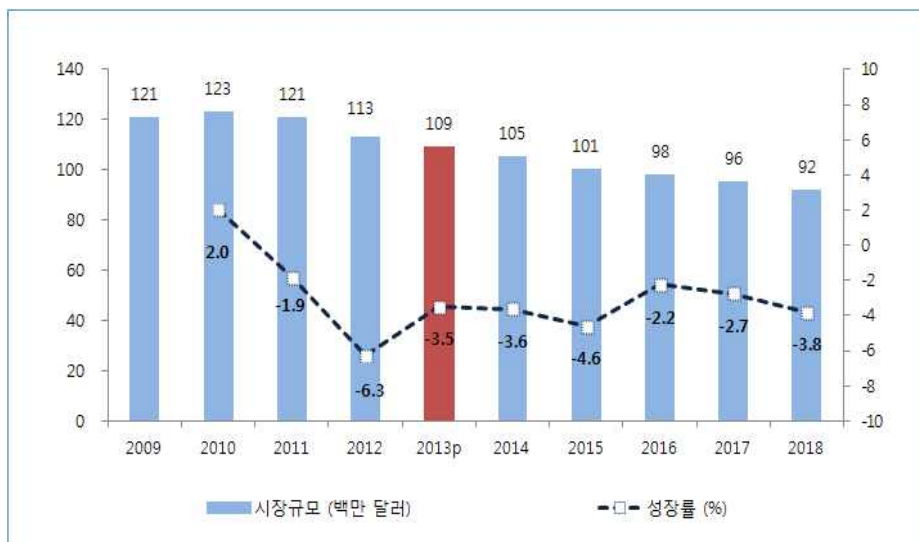
9. 중동·아프리카

게다가 HIT는 ‘레인보우 매직(Rainbow Magic)’을 일본에서 제작하기도 하였다. 향후 영화 애니메이션시장은 2018년까지 연평균 5.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1,500만 달러의 규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 홈비디오 애니메이션

2013년 영국 홈비디오 애니메이션시장은 OTT 스트리밍 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3.5% 감소한 1억 9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OTT 스트리밍 서비스의 증가와 함께 가정에서 월 정액제로 시청 가능한 유료TV 애니메이션과 시장 경쟁을 하면서 가격이 다소 높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홈비디오 애니메이션시장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전환에 맞물려 유럽 경제위기는 영국의 홈비디오 대여 체인점과 유통 소매점들을 무너뜨리면서 홈비디오시장의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향후 5년간 3.4%의 하락세를 보이며 영국의 홈비디오 애니메이션시장은 2018년까지 9,200만 달러의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38] 영국 홈비디오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09 - 2018



출처 : PwC(2014), Digital Vector(2013)

라. 디지털배급 애니메이션

2013년 영국의 디지털배급 애니메이션시장은 스마트 단말기 보급 확대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36.6% 증가한 1,700만 달러 규모로 집계되었다. 스마트폰의 보

제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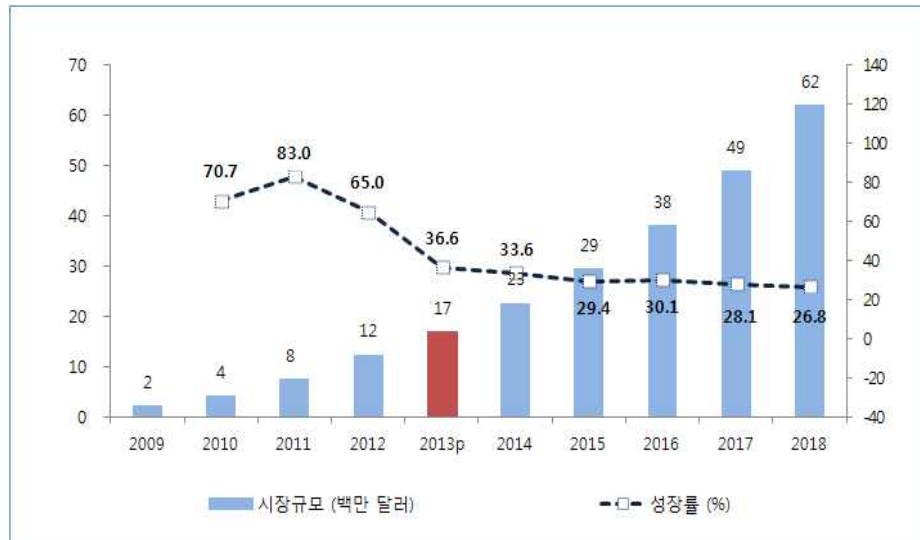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급률 증가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고정 브로드밴드의 고도화는 수준 높은 OTT/스트리밍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있어 디지털배급 애니메이션시장은 향후 5년간 29.6%의 성장률을 바탕으로 6,200만 달러의 시장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된다.

[그림 2-39] 영국 디지털배급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09 - 2018



출처 : PwC(2014), Digital Vector(2013)